‘백석저수지’ 생태친화적 공간 조성 모색

전주시, 송천동 백석저수지 개발 기본구상안 마련 위해 민·관 협의회 운영… 다양한 의견 수렴

전주시가 에코시티 인근 백석저수지를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환경단체, 주민대표 등과 머리를 맞댄다.

시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된 ‘송천동 백석저수지 개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백석저수지의 시민휴식공간 조성요구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저수지 수변공간에 노을·숲·호수가 결합된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자연 속에서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백석저수지 주변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하지만 최근 백석저수지 내에서 큰고니와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서식이 확인되는 등 생태적 보존가치가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생태친화적 공간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9일 백석저수지 현장을 방문해 백석저수지 개발 기본구상안 수립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계자들과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백석저수지 민·관협의회에는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대표, 시의원, 공무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협의회는 향후 백석저수지의 생태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저수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태 보존과 시민편익 증진 사이에 균형 잡힌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백석저수지 현장을 방문해 백석저수지 개발 기본구상안 수립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계자들과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는 그동안 사람, 생태, 문화의 핵심가치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백석호수는 생태의 보고이자 시민들의 행복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도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주민과 시민단체, 행정과 의회의 의견을 집약해 ‘마음 따뜻한 호수’를 만들어 내고, 아울러 ‘백석 노을 도서관’을 지어 책의 도시를 끌어가는 한 축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기록 ㈜코리아센터 대표는 19일 전주시장실에서 전주맛배달의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개발·관리 등 상호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맛배달’ 편의성·만족도 높인다

시, 코리아센터와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 등 위한 협약

전주시가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유통플랫폼과 손을 맞잡았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기록 ㈜코리아센터 대표는 19일 전주시장실에서 이영로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맛배달의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개발·관리 등 상호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전주맛배달의 소비자와 가맹점 확보, 사업홍보 전략 수립 등 대외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리아센터는 전주맛배달 활성화를 위한 기능 개선에 나서고, 소비자와 가맹점의 불편사항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코리아센터는 ‘몰테일’, ‘스템프팡’, ‘다나와’ 등 온라인 유통 관련 플랫폼을 운영 중인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이 업체는 자사가 보유한 온라인 유통플랫폼 노하우를 활용해 전주맛배달의 최적화를 제공하는 한편, 전주맛배달 앱 서비스의 지속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인재를 채용해 관리 상주 인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돕고 대형 민간 배달앱사의 과도한 중개 수수료 등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전주맛배달 앱을 선보였다. 전주맛배달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 속에 현재 누적 매출액 10억원을 돌파하는 등 지역 배달앱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시와 진흥원은 전주맛배달 활성화를 위해 전북은행 등 지역 기업 협력 이벤트 릴레이를 실시해 상생 소비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가맹점과의 소통마당 및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의 성공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일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관심 속에 누적 매출액 10억을 돌파한 전주맛배달이 지속가능한 공공배달앱이 될 수 있도록 ㈜코리아센터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맛배달’ 가맹점 가입 신청 및 문의는 ‘전주맛배달’ 누리집(www.jjorder.kr) 또는 콜센터(1899-1010)을 이용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완산구, 여름철 생활밀착형 종합대책 가동

9월까지 안전·위생·복지·생활불편 분야 지원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완산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안전·위생·복지·생활불편 분야에서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밀착형 종합대책을 지원하고, 폭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취약계층 및 시설의 피해를 예방·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선 구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도로 물고임 및 파손부위 △침수우려도로 측구 △빗물받이 등에 쌓인 퇴적토 △급경사지, 교량·언더패스·지하차도 주요구조물 기능 등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사전 점검하는 한편, 동부대로 붕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절개지 붕괴 시 신속하게 상황전파 및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등 차량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구는 여름철 쉽게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여름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45개소와 집단급식소 301개소 등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여름철 자주 이용하는 수영장 8개소, 영화관 및 영화상영관 9개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철저한 안전 및 위생 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폭염·집중호우 등으로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활용해 매일 취약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상담 및 발굴을 강화한다.

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주민 등 인적 안전망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민간자원 발굴·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폭염대비 시원한 여름 나기(쿨서비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폭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3일부터 133개소에서 잠시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막을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살수차 6대를 이용해 주요 도로 33개 주요 간선도로에 물을 분사해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23개소에 얼음을 배치하고, 경로당과 관공서 등 256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는 등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과 어르신 등이 시원한 공간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구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근무시간 조정 △폭염 대응 안전교육 실시 △가로·교통정비 직원의 순찰활동 시간 탄력 운영 등 노인들이 참여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현장업무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여름철 생활밀착형 대책과 철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해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대변혁 큰 그림 함께 그려나갈 것”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 품남문서 출정식 갖고 5대 핵심공약 제시

“전주는 지난 1000년 동안 호남을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위상을 회복하는 첫걸음을 오는 7월 1일 저 우범기와 함께 내딛기를 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가 공식선거 개시일인 19일 오전 7시 30분 풍남문 광장에서 6.1지방선거 출정식을 갖고 ‘강한경제, 전주대전환’을 위한 힘찬 출발을 선언하고 13일간의 선거일정에 돌입했다.

우범기 후보는 첫 유세를 풍남문에서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전주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전주를 대표하는 역사적 공간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첫 유세일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선왕조 4대문을 복원하고 나아가 조선왕조의 본원인 왕도전주의 위상회복과 황실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뜻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후보는 출정선언문을 통해 “전주는 30~40년을 제외하고 전남과 제주도를 아우르는 강한 경제도시였다. 소소한 소꿉놀이식 행정으로 전주의 대변화를 가져 올 수 없다”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전주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우 후보는 5대 핵심공약으로 ▲전주몫의 예산확보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등 신사업 신속 추진 ▲기업하기 좋은 전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돈 받을 수 있는 큰그림을 그리겠다”며 1조 원 규모의 5개 핵심사업을 기획하고 조속한 예비타당성 심사계획도 밝혔다. 그는 또 “빚을 내서라도 침체 된 전주경제를 조속히 회생시킬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할 일이 많은 전주여서 기쁘다”고 전제한 우 후보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전주의 대변혁을 하겠다”면서 “그 변화는 과거 산업시대가 아닌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변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쨍하고 해뜰날 돌아오는 전주’ 이루겠다”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 “윤석열 정부 강력한 집행력으로 전주 살릴 것”

김경민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는 1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해 청년이 잘사는 전주, 노인수당 100만 원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한 전주를 만들겠다”며 출정 일성을 전했다.

김 후보는 “전주경제는 생동감을 잃었다”면서 “민주당으로는 전주를 살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집행력으로 전주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민주화와 정권교체에 앞장 서왔던 김대중 정신의 적통이라고 자평한 후, “대통령의 의지와 집권당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각종 예산태풍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30년 민주계열 정치이력, 중앙인맥과 집권여당의 집행력이 있기에 ‘쨍하고 해뜰날 돌아오는 전주’가 가능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야호학교, 제2회 야호 아카데미 강연회 가져

전주시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교육전문가와 함께 교육 노하우를 공유했다.

전주시 야호학교(교장 장경수)는 19일 야호학교 4층 두빛나래 강연장에서 청소년 교육 관련 전문가, 학부모 등 40여명을 초청해 ‘한발 더 멀리 뛰는 세상’을 주제로 ‘2022년 제2회 야호아카데미’ 강연회를 개최했다.

야호아카데미 강연회는 야호정책을 추진하는 전주시가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학부모교육이다. 강연기획부터 강연자 발굴, 홍보, 진행까지 시민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전직 교사이자 현재 봉사활동가로 활약 중인 김병욱씨와 IT전문가인 정해웅 한국온라인네이터랩 이사가 참석자들과 함께 삶의 경험과 교육 노하우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나눴다.

우영영 전주시 야호전환교육과장은 “전주시는 아동·청소년들의 가장 밀접한 멘토인 학부모들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학부모교육인 야호아카데미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면서 “야호아카데미가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부모와 자녀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음 강연도 알차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제1회 전북지역 의료기관 사이버보안협의회 개최

4개 공공의료기관 5개 민간병원 참여 전북대병원서 열려

전북지역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들이 의료정보분야의 사이버 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협력과 보안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에 따르면 2022년 제1회 전북지역 의료기관 사이버보안협의회가 지난 18일 전북대병원 노인보건센터 지하1층 백제홀에서 개최됐다.

전북대병원이 주최하고 국가정보원지부가 주관한 협의회에는 전북대병원을 포함해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4개 공공의료기관과 대자인병원, 동군산병원,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전주열린병원 5개 민간병원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최신 사이버 위협동향 및 대응방안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소개 및 사례 △보안시스템 운영 사례의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도내 의료기관 정보보호담당자 참여를 통해 의료기관 간 사이버보안 업무추진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을 토의하는 등 사이버보안협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 안전교육·캠페인

전주시내버스 운수업체 성진·제일여객 운영진과 전주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와 직원 200여 명 대상으로 불친절 개선 및 난폭운전 근절을 위한 친절·안전교육 실시 및 캠페인을 19일 펼쳤다.

이날 교육 및 캠페인은 친절 및 안전운행 교육,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운행 등 유의사항, 마스크 착용 및 회차지 환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이뤄졌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완산구, 상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활동 전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는 이달 말까지를 ‘2022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25일부터 구·동 세무담당 공무원 25개 반 46명으로 구성된 체납지방세 징수반을 구성, 체납지방세 12억7400만 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자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현년도 재산세 체납자 납부독려 문자 발송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예고 및 영치 △현년도 재산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등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왔다.

특히 구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 강화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신속한 재산압류 및 공매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단,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을 안내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구청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및 가상계좌 안내, 방문 납부(신용카드) △전주시 지방세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등을 이용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